

순천 '5G 적용 태양광발전 원격 운영 플랫폼' 개발 나선다

산자부 1차 에너지기술 개발 공모 선정...국비 64억 등 70억 확보
국내 최초 시스템반도체 기술 접목 태양광발전소 운영비용 절감

순천시가 5G 통신기술을 적용한 태양광발전소 원격 운영·관리 플랫폼 개발에 나선다. 27일 순천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2020년 제1차 에너지기술 개발' 공모에

'5G기술 적용 MW급 태양광발전소 원격 지능형 운영·유지보수 기술개발·실증' 사업이 선정돼 국비 64억원을 포함해 70억원을 확보했다. 이 사업은 인공지능(AI)·빅데이터와 5G 통신

기술을 결합한 대규모 태양광발전소 운영·관리 플랫폼 기술요소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오는 2023년까지 70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티에프가 주관하고, ㈜디블유피·㈜이음아이씨티 등 순천지역 에너지 IT기업이 참여한다. 순천시는 이 사업에 행정 지원과 지방비 투자 등 사업 지원업무를 맡는다. 이들 기업은 이 사업을 통해 국내 최초로 시스템

반도체(SoC) 기술을 에너지에 접목해 일정규모 이상의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유지보수와 운영비용 절감에 대한 기술을 개발하게 된다. 이는 5G, AI, 시스템반도체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대규모 태양광발전소 원격 운영·관리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한 획기적인 발판이 마련됐다는 데 의미가 크다. 순천시는 기술개발에 따른 성과가 확산될 경우

연 매출 400억원과 전문인력 60여명의 고용 창출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5G·AI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중대형 태양광발전소의 원격 운영·관리를 위한 차세대 연구·개발 공모사업에 선정됐다"며 "앞으로도 에너지 관련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순천 해룡산단에 첨단고무소재 지원센터 준공

227억 들여 연구동·고무배합동 갖춰
항공·자동차용 고무가 소재 개발

순천시 해룡산단에 위치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첨단고무소재지원센터가 지난 26일 준공식을 갖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27일 순천시에 따르면 KTR 첨단고무소재지원센터는 총 사업비 227억원(국비 100억원, 도비 35억원, 시비 50억원 등)이 투입돼 연구동(4층)과 고무배합동(2층)을 건립했다. 센터는 첨단고무소재 연구개발에 필요한 시험평가를 진행하고, 상용화 시스템 및 표준화 체계를 구축해 고무소재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게 된다. 특히 항공우주, 자동차, 전기전자 등에 사용되는 고무가가치 고무 소재 개발을 지원한다. 고강도·고내열·극저온 첨단고무 소재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늘고 있어 순천 해룡산단의 경쟁력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해룡산단에 위치한 KTR 첨단고무소재지원센터를 통해 고무 제품의 기술 자립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은 지난 26일 순천 해룡산단에 첨단고무소재지원센터를 건립, 준공식을 했다.

과 국내 고무산업 발전을 기대한다"며 "시는 앞으로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준공 행사에는 권오정 KTR 원장을 비롯해 기업인,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광양 매실 본격 출하...구연산 함량 높고 향도 진해

광양의 대표 특산품인 '광양 매실' 2020년산이 본격 출하됐다. (사진) 27일 광양시에 따르면 최근 진상농협은 매실 선별장에서 2020년산 광양매실 첫 출하식을 열고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갔다.

광양지역은 기후가 온난하고 일조량이 풍부해 최적의 매실 재배조건을 갖추고 있다.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는 매실에 비해 구연산 함량이 높고 향이 진하며 색깔이 선명한 것이 특징이다.

지리적표시제 등록(제36호)과 매실산업특구로 지정된 광양 매실은 2015년부터 한국브랜드경영협회가 뽑은 대한민국 소비자 신뢰 브랜드 대상에 5년 연속 대상을 받았다. 2020년산 광양매실은 10kg 기준으로 평균 2만 원에서 4만1000원에 수매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8300t이 수출돼 150억원의 수입을



올렸다. 광양시는 매실 소비 확대를 위해 홈쇼핑 판매를 지원하고, 장아찌 가공용 기기를 보급하는 등 지원에 나섰다. 광양시 관계자는 "올해는 일부 농가에서 냉해 피해가 있어 작년보다 수확량이 소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시민안전·교통편의...여수 도심 교통환경 확 바뀐다

교통전광판·버스정보안내기 구축
정류소 428곳 LED전등 설치도

교통정보 전광판 바꾸고, 버스정보 안내시스템 구축하고,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하고, 무인단속카메라 늘리고... 여수시 교통환경이 확 개선된다. 27일 여수시에 따르면 시는 시민의 안전과 교통편의를 위해 다양한 교통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 중이다. 올해 도심 곳곳에서 교통정보 전광판 교체 및 성능 개선, 버스정보안내기 구축,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시내버스 정류소 전등 설치, 교통안전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등이 진행 중이다. 교통정보 전광판(VMS)은 16억원에 투입해 총 36개소 가운데 노후된 장비 29개를 LED 전광판으로 교체하거나 성능을 개선한다.



여수시교통정보센터는 교통전광판 운영, 교통정보 제공, 버스정보 안내기, 신호체계 등을 총괄 제어하고 있다. <여수시 제공>

시내버스 이용객들에 실시간 운행 정보와 버스 도착 예정시간, 행정정보 등을 제공하는 버스정보

안내기(BIT)도 12억원을 들여 70개소에 새롭게 설치하고, 노후된 30개소는 교체할 예정이다. 시내버스 정류소 이용객의 편의와 야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억여원을 들여 지붕이 있는 버스 정류소 745곳 중 428곳에 LED전등을 설치한다. 야간 횡단보도를 환하게 비춰주는 LED투광기도 2억여 원을 들여 7월 말까지 31곳에 추가 설치한다. 교통사망사고 발생지역과 어린이보호구역 등 총 27개소에는 6월 말까지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민식이법 시행에 따른 시설 확충을 위해 1회 추경 예산을 확보해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교통환경 개선사업 추진으로 여수시 교통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편의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여천NCC, 경로식당에 아크릴 가림막 설치

여천NCC(총괄공정장 문경옥)는 코로나19 여파로 복지관이 휴관에 따라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위해 대체식을 제공하는 등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여천NCC는 지난 25일 코로나19로 인해 휴무 중인 희망사당 운영비 전액을 사회적 거리두기 위해 집에 머물러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 농산물 꾸러미 150여개를 전달했다.

또 재개관을 앞둔 동여수 노인복지관의 경로식당 내 위생정결 유지를 위해 120만원 상당의 아크릴 가림막 25개를 설치하도록 후원했다. (사진) 경로식당 가림막 설치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도 있지만, 평소 기침이 심한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



여천NCC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동여수노인복지관 경로식당에 가림막을 설치했다. (여천NCC 제공)

는 경로식당의 특성상 시급히 조치해야 할 사업이었다. 가림막 설치 사업은 여천NCC가 복지관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이뤄졌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아시고 전화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단(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